Good Morning ASIA

2014 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몽(夢)땅 인천골목

세월,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보게, 세월 보내게 장기나 한판 두세.”
그늘진 곳에 장기판을 펼치자마자
포가 날아다니고 말이 진격합니다.
훈수쟁이 조차 숨죽일 만큼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기판에는 일수불퇴(一手不退)의 매정함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얼마든지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목에서 그들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 동구 송현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천십사년 유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6

contents

incheon

06 **호국보훈의 달** 강화도 민통선 버스 기행
12 **6월 월드컵** 한국첼시축구학교, 레드엔젤스
18 **희망 인천** 제물포스마트타운 준공
22 시니어창업센터 개소
24 **Culture Info** ‘인천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외
26 **내 길 내 일** 최원영 다카스 이사장
28 **그린 인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29 **사회적기업 탐방**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30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32 **News Brief** ‘송도에 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외
35 **의정뉴스** 지방자치제도 배우는 의정아카데미 열어
36 **이달의 서평**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외
37 **모닝커피 한잔** 섬에 대한 나의 헛된 몽상
38 **생활정보** ‘대한민국 대표할 평화의 노래 찾습니다’ 외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6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주)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스리랑카
49. 에티켓
파티 열기
50. 교통대책
대중교통은 6만 관람객의 편하고 빠른 발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56. 하나되는 아시아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쳐?’ 외
58. Asiad News
‘최경주, 2014 인천AG 홍보대사에 위촉’ 외

asia

표지이야기

▶ 요즘 인천 원도심에서 가장 ‘핫’한 곳은 송월동 동화마을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도권의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나들이 합니다. 최근에는 연인들도 데이트 하러 많이 옵니다. 이곳에 올 때 필수품은 디카입니다. 울긋불긋한 동화 벽화를 배경으로 인증 샷 찍기에 바쁩니다. 이번엔 책 표지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 올해부터 ‘굿모닝인천’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뒷 표지는 OCA 회원국과 관련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과 관련된 표지가 실릴 수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공교롭게도 보훈의 달 6월호의 뒷표지로 북한 관련 사진이 실렸습니다. OCA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 인천AG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물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ulloger

시민께서 인천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등장했네요. 제물포스마트타운 웹사이트는 없나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과 그 안의 JST일자리지원본부 웹사이트 주소는 www.jst.or.kr입니다. 앞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더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계산, 검암 지역을 다니는 선진버스가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침 시간에 이십분 넘게 기다렸는데도 지나가 버려서 곤란했던 일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강화군청 경제교통과(930-3367)에 문의한 결과, 국민신문고나 경제교통과에 직접 전화로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 버스회사의 과실 여부 확인을 거쳐 교육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하여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720번 버스 도대체 왜 그러나요? 손까지 흔들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네요.

본의 아니게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120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주시면 신고 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me2day
twitter blog
facebook social networ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자랑스러운 나의 인천

독자 홍성수(남동구 논현동)

홍성수님은 6·25 전쟁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 와 1951년 인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이 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인천과 함께했습니다. 60여 년 세월이 절절히 배인 만큼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어린 시절 중구 신생동에 살았다. 당시 신포시장을 지나 홍예문 옆 계단을 올라 자유공원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며 푸른 바다 너머로 꿈을 키우곤 했다. 한때 인천은 서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오랜 세월 인천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발전이 그 누구보다 기쁘고 자랑스럽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굿모닝인천을 보며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시정소식도 상세하게 전해준다. 책을 통해 인천에 대해 알아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인천을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오는 9월에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인천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유명대학, 대기업 등을 유치하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굿모닝인천 독자를 비롯한 인천시민들도 애향심을 갖고 인천의 앞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강화의 낯선 여행

길가의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한 줌도 허투루 보이지 않는 땅.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역사 관광지다. 5천년의 흔적이 시대별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선사시대 참성단과 고인돌부터 고려시대의 항몽(抗蒙) 유적, 조선시대 때 외세에 맞섰던 피의 현장들 그리고 분단의 역사까지 험난한 한반도의 역사 문턱은 강화도에서 시작된 게 많다. 이 땅은 한반도의 옹이 같다. 아픈 상처가 곳곳에 박혀 있는 분단 현장을 철책선 따라 버스 타고 기행한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북녘 땅에 가장 근접해 달리는 노선버스

사람들은 강화도를 찾으면 열에 아홉은 섬의 남쪽, 기껏 올라가봐야 읍 근처의 중앙 지역을 훑고는 발걸음을 돌린다. 섬의 북쪽 길은 끊어져 있다. 바다가 한번 끊고 철조망이 또 한번 끊는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 단절일 뿐이다. 길은 끊어지지 않고 섬의 구석구석을 이어주고 다시 섬의 중심부로 돌아 나온다. 그 길 따라 강화를 강화답게 만드는 유적지와 관광지가 적지 않다. 오히려 한가함과 고즈넉함으로 섬 특유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느긋한 목가적 풍경과 예리한 긴장의 현장이 오버랩되는 묘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이번 기행은 시골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마음에 아예 버스를 이용했다. 군내(郡內) 버스에 몸을 실었다. 털털털, 풀풀풀, 구불구불. 이런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를 상상하면 곤란하다. 이름만 생소할 뿐 군내 버스는 시내(市內) 버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요금도 교통카드로 지불하고 안내 방송도 잘 나오며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시원스레 달린다. 게다가 정류장 표지판에는 개별 고유 ID가 적혀 있어서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이 첨단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다. 유치원 아이부터 팔순 할머니까지 자기 마을 앞 버스 도착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꿰고 있다.

26번 군내 버스를 송해면사무소 앞에서 탔다. 이 버스는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섬의 북쪽을 돌다가 다시 터미널로 되돌아가는 순환버스다. 오전 오후 각각 세 번, 하루에 여섯 차례만 운행한다. 이 버스는 당산리에서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해 '민통선(民統線 ·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북녘 땅에 가장 근접해 달리는 노선버스일 것이다. 이것이 이 버스를 탄 이유다.

"읍내에 나가 장보고 오는 길이야. 목욕하고 머리하러 갈 때 그리고 동네 할멈들이랑 외식하러 갈 때도 이 버스 타고 나가."

꿱꿱 소리 지르는 산 닭을 손에 쥐고 버스 탄 아주머니의 모습은 이제 옛날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풍물이다. 이곳 할머니들은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읍내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한다. 승객은 모두 8명. 얼추 봐도 60세는 넘어 뵈는 할머니들과 운전기사 옆 좌석에서 한담을 나누는 아저씨 한 명 뿐이다. 한낮 도시 버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시골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차창 밖의 풍경뿐. 지금은 농부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다. 물을 가득 채운 논에서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다. 큰 논 작은 논 할 것이 없이 대부분 트랙터를 타고 일한다. 그 때문인지 버스는 이동 중인 트랙터들과 쉴 새 없이 도로에서 마주친다.

뭔가 봤어도 못 본 척 해야지

승뢰리로 접어들자 오른편 창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길게 이어진 철조망과 경계 초소.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는 높은 철책선이 끝없이 이어진다. 도로 옆으로 검문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보인다. 잠시 후 버스 앞창으로 해병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장한 초병 두 명이 버스를 꼿꼿이 바라보고 서있다. 저 쪽 너머부터는 민통선 지역이다. 순간 자동모드로 몸이 굳는다. '내가 신분증을 가져왔나?', '무슨 용무로 왔냐고 하면 뭐라 말하지?' 머리도 함께 굳어진다.

승객들을 둘러보았다.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들이다. 초병이 버스에 올라 타 검문을 할 때 눈을 감을까? 군사지역을 지날 때 '민간인'은 눈감은 척, 뭔가 봤어도 못 본 척, 카메라는 가방 깊숙이 넣는 것이 상책 아닐까?

버스는 '다행히' 정차하지 않고 운전기사와 초병들 간 거수경례를 교환한 후 무사통과. 바리게이트를 요리조리 피한 버스는 다시 북쪽으로 내쳐 달린다. 지금 이 버스에 탄 할머니들은 모두 민통선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 상황은 일상일 뿐이다. 그들에게 이곳 검문소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같은 정도의 시설물로 여기는 듯하다.

모기는 오가는데 우리는 막혀 있다

버스는 이제 거의 철책선과 붙어 달린다. 착시인가. 가득 채운 논물 때문에 철책선은 마치 이 바다와 저 바다 한가운데 쳐놓은 그물망처럼 보인다. 철산리에 접어들자 멀리 야트막한 산 위에 하얀 건물이 보인다. 강화평화전망대이다. 내리기 위해 엉거주춤 서 있자 운전기사가 한마디 던진다. "오늘은 시야가 별로 안좋네요. 그래도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2층 전망대에 섰다. 물길을 가운데에 놓고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다. 이건 국경(國境)이 아니라 접경(接境)이다. 헌법상 그곳은 아직 수복(收復)하지 못한 우리 땅일 뿐이다.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 왼편으로 예성강이 흐르고 오른편으로는 임진강과 한강이 흘러들어 서해로 내려가기 전 전망대 앞에서 소용돌이치며 합수된다. 한반도 지형에서 이렇게 한 공간에 세 개의 큰 강이

합류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 물은 그렇게 어깨 싸움을 하듯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매일 이곳에서 만나고 있다.

북한 땅과 가장 근접한 거리는 불과 1.8㎞. 소리라도 지르면 북녘 산에 부딪혀 메아리로 되돌아올 정도의 거리다. 하긴 두 땅이 너무 가까워 북한 쪽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면 강화도 사람의 헌혈은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모기는 남북을 넘나들며 피를 나누는데 정작 피를 나눈 우리는 서로 막혀 있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희미하다. 물길 너머의 땅에서도 한창 모내기 준비로 바쁘겠지. 옥외 전망대에 설치된 고성능 관광용 망원경에 눈을 댔다. 500원짜리 주화가 망원경 몸속으로 '땡그렁'하며 들어가자 희미하나마 북녘의 산하가 좀더 가깝게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 절대 못 간다. 피사체만 커질 뿐 우리는 그곳으로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한다.

강화평화전망대는 얼마 전 그 이름을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로 개명했다. 제적봉(制赤峰)의 '제적'은 말 그대로 '빨갱이를 제압 한다'는 의미다. 제압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을지. 해무만큼이나 희뿌옇게 된 마음을 안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제 버스는 전망대를 기점으로 머리를 살짝 남서쪽으로 돌린다. 철책선은 북성리 지나면서 시야에서 멀어진다.

철책선으로 둘러쳐진 숭뢰리의 오래된 가옥 문에 붙은 낡은 패찰. '강화국방의회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같은 이름의 땅, 여전히 단절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돌아간다. 26번 순환버스 노선의 반대 코스로 27번 군내버스가 시계 방향으로 운행한다. 길 건너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오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검문소를 바로 지나 당산리에서 내렸다. 길가에 '고려고종사적비 입구'라는 표지석이 서있다. 바다 쪽으로 농로를 따라 10분 남짓 걸으면 커다란 철책이 길을 막는다. 이곳은 승천포다. 1232년 여름, 며칠째 그칠 줄 모르는 장맛비를 뚫고 수천 척의 배가 이 포구에 닿았다. 고려 고종은 칭기즈칸의 말발굽을 피해 10만 세대의 고려인들과 함께 개경을 떠나 강화 땅을 밟았다.

당시에는 이곳에 그럴듯한 마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내기를 앞둔 논들만이 철책선 앞에 펼쳐져 있다. 전쟁 전까지 이곳은 개성과 통하는 가장 가까운 나루터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다. 뱃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무당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당산리가 되었다.

그 옛날 포구자리 앞 언덕 아래에 고종의 도착과 대몽 항쟁을 기념하는 비석이 외롭게 서 있다. 철책 너머 건너편 이북에도 똑같은 이름 승천포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가 몽골과 단절하기 위해 넘어 온 땅, 이름이 같았던 그 두 땅은 9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또 다른 이유로 여전히 단절돼 있다.

강화도의 민통선

그 민통선(民統線)엔 민통(民痛)이 있다

민통선은 6·25 전쟁이 남겨 놓은 상흔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는 군사분계선을 그어 여기로부터 동일하게 2㎞씩 물러나 비무장지대(DMZ)를 뒀다. 중앙의 휴전선으로부터 남쪽 2㎞ 지점에는 남방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다. 민통선은 남방한계선 뒤쪽 5~20㎞ 떨어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다.

강화도는 북부지역 송해면 월곶리부터 양사면 인화리까지 민통선이 그어져 있다. 얼마 전까지 월곶리 연미정도 민통선 안에 있어 이곳을 관람하려면 해병대 초소 검문을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당산리 승천포 방문도 해병대 사전 허락이 있어야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평화전망대를 가려면 당산리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 모든 차량을 검문 하지는 않지만 간혹 일부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는다.

강화평화빌리지 송해면 숭뢰리 일대에 자리 잡은 휴식공간으로 약 5천㎡ 부지에 숙박시설 6동과 사무동, 정자, 잔디밭, 벤치 등을 갖추고 있다. 강화나들길 1코스와 18코스가 가까이에 있으며 북한지역을 맨눈으로 조망할 수 있다. 숭뢰저수지를 중심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다.(930-4333)

화문석문화관 송해면 양오리에 있는 화문석문화관에서는 전국 유일의 왕골공예품인 화문석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1층 우수작품전시관에는 각종 문양의 화문석과 꽃삼합 등 소품이 전시돼 있다. 2층 문화관에서는 왕골공예 제작 과정과 장인들이 제작한 화문석 대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930-7060)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화문석문화관 바로 옆에 있는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에 들어서면 '티라노사우루스' 등 커다란 공룡들이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한때 양당 초등학교 교정이었던 박물관 마당은 흡사 쥐라기 공원을 재현한 것 같다. 교실을 개조한 전시관에서는 헤라클레스투구벌레, 백올빼미 등 세계 각 국에 서식하는 희귀한 패류를 비롯해 곤충 · 나비류, 조류, 동물류 그리고 화석류 등을 볼 수 있다.(934-8872)

강화참전기념탑 북한군의 남침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평안도, 황해도, 개성 그리고 개풍군 출신들로 구성된 월남애국청년들은 유격대를 편성해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강화도 사수는 물론 적의 중추시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그들도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청소년유격대, 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 향토방위특공대,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강화군 5개 보훈단체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송해면 하도리에 강화참전기념탑을 건립하였다.

26번 군내버스 주요 정류장

터미널-강화군청 앞-서문-송해삼거리-송해면사무소-숭뢰2리-당산리검문소-평화전망대-북성교회- 생설미-양사면사무소-신봉삼거리-하점면사무소-고인돌-송해삼거리-서문-강화군청 앞- **터미널(순환)**

터미널 출발(오전 6:25 9:30 10:40 **오후** 1:00 3:30 7:05)
북성리 출발(오전 6:55 10:05 11:10 **오후** 1:30 4:00 7:35)

FIFA WORLD CUP
Brasil
2014.6.13~7.14

블루 그라운드에서 '월드컵 키즈' 자란다

6월은 장미의 계절이고, 초록의 계절이며, 월드컵의 계절이다. 둥근 공의 향연에 시민들은 흥분하고 소리치며 마음껏 발산할 준비가 되어있다. 인천시민들은 태극마크만 봐도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어게인 2002'를 되새기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을 것이다.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는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으면 유소년 축구클럽에 가입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난다. 인천 축구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성격과 색깔은 다르지만 인천 축구의 디딤돌이 될 한국첼시축구학교와 인천연고 여자축구단인 현대제철 레드엔젤스팀의 축구스토리를 따라가 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한국첼시축구학교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축구

송도 스마트벨리 인근에 위치한 송도첼시전용구장의 잔디는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이다. 잔디가 꼭 초록색이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파란색은 첼시FC의 상징색이다. 첼시FC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축구클럽으로 런던이 연고지다.

수준높은 선진 축구를 구사하는 첼시FC가 작년 11월부터 송도에 둥지를 틀고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유소년들은 5세~13세까지로 나이별로 구분하여 맞춤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1주일에 1회 1시간 정도씩 진행하며 한 달에 2번은 영국인 코치가, 2번은 한국인 코치가 수업을 진행한다. 영국인 코치들은 유럽축구연맹과 첼시의 코치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있다. 이들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코치가 아이들에게 통역을 한다. 영어와 축구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한국첼시축구학교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즐거움'이다. 아이들이 축구를 즐거운 놀이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처럼 즐기는 축구가 교육 방향이다. 특히 5~7세 유아들은 볼 감각을 익히고, 스토리텔링 축구로 수업의 재미를 더 한다. 또 어깨동무, 파이팅 등 몸으로 배우는 활동으로,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법을 배운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첼시FC프로그램은 한국식 축구와는 달리 개인적 역량과 시도를 장려한다.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이 높아지면 결국 팀플레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한국첼시축구학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아가 축구교실을 여는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한다. 성인들을 위한 취미반과 레이디스 반도 운영한다. 특히 레이디스반의 경우, 자녀가 등록회원이면 무료로 축구강습을 받을 수 있다.

첼시FC는 전 세계에서 유소년 선수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한 구단이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식 유소년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블루피치(Blue Pich)'라 명명된 아시아 유소년 양성 프로그램은 현재 1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번째다.

영국인 코치 캐인(24)은 "한국의 어린이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높다"며, "아이들이 공을 갖고 재미있게 놀다보면 볼 감각도 익히고 축구를 좋아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국첼시축구학교의 조성으로 축구 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절감되고 국내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의 : 831-9723

영국 첼시FC는 1905년 영국 건축가 거미 미어스에 의해 창단된 축구 클럽이다. 영국 런던이 연고지이고, 감독은 조세 무리뉴(Jose Mourinho)다. 프리미어 리그 팀 중 아주 강팀은 아니지만 축구팬들의 고른 사랑을 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석유재벌 조안 아트라비치가 구단주로 영입되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포르투갈 출신의 무리뉴 감독은 독설가로 유명하지만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는 평이다. 첼시의 레전드급 선수로는 프랭크 램퍼드, 존 테리 선수 등이 있다.

인천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국내 여자축구 주춧돌

20대의 꽃 같은 아가씨들이 공을 차고, 몸싸움을 하며 서로 공을 뺏으려는 발재간이 한창이다. 몸은 가볍고 민첩하다. 남자 축구 못지않은 드리블과 근성, 돌파력이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여기에 여자축구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더해져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천연고 구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여자축구단인 현대제철의 '레드엔젤스(Red Angels)'의 활약이 2014년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얼핏 수수해 보이지만 나름 외모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긴머리를 둥글게 말기도 하고, 노란염색, 귀고리로 살짝 멋내기 등. 예뻐지고, 멋부리고 싶은 또래의 여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축구공도 부드러운 빛깔의 분홍색이다.

레드엔젤스는 1993년 창단하여 불모지인 국내 여자축구의 주춧돌 노릇을 해왔다. 레드엔젤스 이후 국내에 여러 여자축구단이 생겼다. 작년엔 '만년 2등'에서 탈피,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축구 경기인 WK-리그 시작 6년 만에 얻은 쾌거였다. 올해의 목표도 당연히 우승이다. 팀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우승으로 해소했다.

레드엔젤스는 확고한 지역구단이 되고자 내년엔 WK리그 24개 경기 중 12개 경기를 인천에서 소화할 예정이다. 또 여자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초·중·고 학교들과 연계하고, 향후엔 학생들을 구단의 선수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레드엔젤스와 시민이 하나가 되는 시민서포터즈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일본여자 시민축구단인 고베 아이낙의 경우 한 번 경기가 열리면 서포터즈는 물론 관람객이 8천여 명 이상 모인다. 이런 팀을 모델로 삼아 인천의 대표적 자랑거리 구단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레드엔젤스는 역사와 인기만큼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얼짱' 스트라이커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아 선수,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테크니션으로 유명한 전가을 선수, 작년 WK-리그 MVP에 빛나는 따이스 선수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중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최인철 감독은 레드엔젤스의 팀 전력을 이렇게 말한다. "볼을 정예화하고 팀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선수들의 기량이 비슷해 누가 경기에 들어가더라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레드엔젤스는 내년부터 홈앤어웨이(Home and Away) 경기를 시작한다. 홈앤어웨이 경기를 하려면 인천에 연습장과 축구전용경기장이 필요하다. 이에 현대제철구단은 연습장과 전용경기장 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레드엔젤스는 인천연고 구단답게 앞으로는 '인천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기고장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구단이 되겠다는 의지다.

한국축구, 제물포에서 시작됐다

브라질월드컵 인천출신 이근호, 하대성 최종 엔트리에

이근호 선수

하대성 선수

근대 축구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1882년(고종 19년)으로, 제물포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호스(Flying Horse)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함선에는 수병들이 있었고, 잉글랜드 출신답게 무기와 식료품에 더하여 축구공까지 싣고 한국으로 왔다. 수병들은 항구에 내려 소일거리로 공을 찼다. 그들이 떠나면서 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고 체계적인 기술을 갖춘 축구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구한말 개항 이후 항만, 정미, 제염, 목제, 연초, 철강 등의 산업이 크게 번성했고 축구문화가 일찌감치 발달했다. 1920년대 인배회, 율목리팀 같은 자생적 '클럽'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매년 '전인천 축구대회'가 열렸다. 그곳이 현재 제물포고교 자리인 웃터골이다.

인천 최초의 축구 클럽은 '인천 조양' 축구단이다. 1930년대 창설되어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1947년 국가대표팀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선발 선수가 인천 조양 소속이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을 누비는 23명의 최종 엔트리 명단에는 인천 선수 2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대표 공격수 이근호(29, 상주 상무), 하대성(29, 베이징 궈안)이 주인공이다. 모두 인천 부평고등학교 출신이다. 두 선수는 20년지기 절친으로 브라질 월드컵 무대에 함께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하대성은 선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킬 패스가 일품이고 공수조율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이근호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다.

한편 2002 한·일 월드컵때는 김남일, 이천수, 최태욱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다. 김남일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천수와 최태욱은 공격수로 뛰어 한국을 월드컵 4위에 올려놓는 데 기여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청년, 그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꿈과 열정이다. 이상과 열정을 쫓아 땀 흘리다보면 어느새 내일의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Jemulpo Smart Town · JST)'이 지난 4월 30일 남구 도화동에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청년들과 그들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인천의 희망 찬 미래를 확인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JST일자리지원본부 사람들.
맨 앞은 초대 본부장인 전무수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정책과 과장

도전으로 통하는 길, 인천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한창 일할 때인 20~30대는 취업난에 봉착했고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절실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핵심정책으로 세우고, 인천이 '도전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그로 인해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3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 교육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제물포스마트타운(Jemulpo Smart Town · JST)' 사업은, 청년들에게 아이디어 발굴

부터 창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창업에 성공한 업체는 374개로 이에 따른 고용창출은 666명, 매출은 290억원에 이른다.

원도심에 핀 희망, 제물포스마트타운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지난 4월 30일 남구 도화지구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각 추진해 온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합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올해 목표하는 취업 일자리는 4천500명, 창업은 100개 기업이다.

"우리시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으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창업 실패자에게 취업을 취업 준비자에게 창업을 지원하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JST일자리지원본부의 본부장인 전무수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정책과 과장은 인천의 청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한편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원도심인 제물포역 주변 도화지구에 조성하는 첫 앵커시설로,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침체돼 있던 이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된다.

아이디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창조경제'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그에 앞선 2010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창업이라는 인식하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사업을 펼쳐왔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조성되면서, 더 많은 인천의 청년들이 시의 창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물포스마트타운 15개 층 가운데 6개 층에는 창업 전용 공간이 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연구실과 사무 공간 등이 있으며, 그 안에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금융 지원, 멘토링 등이 이뤄진다.

1인 기업 '휴메닉스'를 운영하는 임원묵씨는 최근 사무실을 서울에서 이곳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옮겼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누구나 창업으로 꿈꾸던 미래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한데 모여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 JST 창업 지원 포인트

- 창업 공간, 자금 지원, 교육, 상담 등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성공으로 이끄는 단계적인 지원.
-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실질적인 창업 교육과 창업 공간을 지원해 우수한 기업가로 양성하는 창업스쿨.
- 컨설팅 Day,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JST 창업포럼 개최 등 사후 지원까지.

▸ JST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을 희망한다면 누구나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창작터' 프로그램은 4월과 9월 연 2회 모집해 운영한다.
문의 : 제물포스마트타운 725-3000, www.jst.or.kr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기대

우리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4년 연속 고용률 1위를 차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목표 5만7천711개보다 16.7% 증가한 6만7천33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준공으로 일자리의 양적인 창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물포스마트타운 내에는 JST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택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등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입주한다. 이들 기관은 한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구인·구직자 매칭,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JST일자리종합센터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은 물론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까지 아우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 JST 취업 지원 포인트

- 직업상담을 통한 일자리를 알선, 상설채용관을 통한 구직자와 기업의 1:1 현장 면접
-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
- 35세 이하 청년 구직자 대상의 인사, 무역, 경리사무원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JST 취업 지원을 받으려면?

JST 일자리종합센터는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 구직 신청 접수 및 등록, 상담 및 취업 알선, 개인별 적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운영한다. 1600-1982(일구빨리)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 기관

꿈과 열정, 미래로 꽃피우다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청년 구직자는 물론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노인층 등 취업취약 계층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오늘 흘리는 땀방울을 내일의 성공으로 만들어 가자.

JST일자리지원본부 취업과 창업 업무를 통합해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지원부에서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자 역량 강화 교육, 취업 및 구인정보 제공, 취업 박람회 개최를, 창업지원부는 창업 아이디어 개발과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 자금 알선 등을 지원한다.

JST일자리종합센터 인천의 구직자 및 구인 업체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 노인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상담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으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업 지원 기구로, 창업 교육, 창업 기업 사후 관리, 창업 경진 대회 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자들을 지원한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펀딩, 네트워킹,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의 전 과정을 뒷받침한다.

노인인력개발센터 · 인생삼모작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추진한다. 현재 경증치매돌봄사업, 노노케어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5,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지원하는 인생삼모작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컨택센터 기업 컨택센터(Contact Center)란 전문상담원이 전화, E-mail,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 원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인천시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창업상담실, 사회적경제협의회, 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다.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저소득층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시민사회, 지역기업 등과 함께 자발적 기부로 어려운 이웃의 창업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다.

문의 : 제물포스마트타운 725-3000, www.jst.or.kr

현역보다 빛나는 **‘제2의 전성기’**

‘아직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은퇴를 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에 현실은 녹록치 않다. 돌파구는 바로 창업.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시니어창업센터’가 지난달 17일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열었다. 경영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이 오늘의 희망을 내일의 성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창업으로 내일 여는, 시니어창업센터

5,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시니어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 대부분이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소중한 창업자금만 잃어버린 채 꿈을 접곤 한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청년들에게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있다면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는 ‘시니어창업센터’가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시니어창업센터가 지난달 17일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열었다.

이는 인천시가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공모한 ‘2014년 신규 시니어비즈플라자’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소가 있다. 인천시와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가 운영하는 시니어창업센터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단계부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경영 전문가의 원스톱 창업 지원

시니어창업센터는 창업 준비 공간을 비롯해 창업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에 따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센터 내에는 21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 세미나실, 상담실 등의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 안에서 경영전문가로부터의 상담과 자문이 이뤄지고, SNS 마케팅, 부가세신고, 법인결산, 실전창업전략 교육 등 경영 관련 교육이 제공된다.

상담과 지원을 맡고 있는 경영 전문가들은 창업자들의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안경식 총괄 매니저는 20여 년 경력의 국제공인 경영컨설턴트로, 경인지역 780여 개 벤처기업을 발굴해 65개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킨 바 있다.

“최고의 경영 전문가들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기업으로 성장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니어층이 창업 성공으로 다시 도약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역시절보다 더 화려하게

한국 웨스트모어랜드 대체의학협회의 간수웅 회장은 최근 시니어창업센터에 입주했다. 그는 미세조류를 대체에너지와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으로 도전장을 냈다.

“우리 세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뒷받침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믿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시와 정부의 지원이 반갑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시니어창업센터의 문을 두드리자. 막연했던 희망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다. 인천 최초로 시니어의 창업 지원에 나선 시니어창업센터는 향후 운영 성과를 높여 각 자치구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역시절보다 더 화려하게’. 시의 지원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재도약을 돕고, 나아가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한다.

▸ **시니어창업센터를 이용하려면?**

대상은 벤처 ·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인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교육 ·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비 타당성을 검토,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 후에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1년간 창업 준비 공간과 창업 교육, 상담, 자문 등 창업에 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429-6622.
참여 하기 ☞ 창업넷 → 시니어창업 → 시니어비즈플라자
senior.changupnet.go.kr

Culture Info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8 **인천남구여성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무료
☎ 880-4296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서도소리명창 이문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부 875-4644

특별한 일요일 오후 '앙상블 시나위'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오후 5시 / 무료(선착순 300명)
☎ 760-1013

10 **가족뮤지컬 '벌거숭이 임금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사랑방시네마 '우린 액션배우다'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무료
☎032-505-5950

11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전석 5천원
☎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 02-6403-7891

가족뮤지컬 '벌거숭이 임금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40분 / 전석1만5천
☎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

12 **인천카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 765-6962

연극 '만화방 미숙이'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 무료
☎ 899-1516~7

13 **황.금.토.끼**
자연을 노래하는 포크 콘서트 '여행 스케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051

'저음의 앙상블, 콘트라바스의 향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3천원
☎ 505-5995

14 **인천미추홀클라리넷앙상블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 433-7778

15 **신명 박규리 전통 춤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 544-3213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전통예술공연단 the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한국국악협회 인천시지부 875-4644

특별한 일요일 오후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오후 5시 / 무료
☎ 760-1013

17 **사랑방시네마 '자전거 탄 소년'**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무료
☎ 505-5950

18 **커피콘서트Ⅵ**
바흐솔리스텐서울의 고(古)음악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19 **플루투 앙상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인천플루트콰이어 888-2898

20 **황.금.토.끼**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
'라스페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051

2014 플랫폼 초이스
'불세출콘서트 우연의 음악'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7시 / 1만5천원
☎ 760-1005

TBN 인천교통방송의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금요낭만다방'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 오후 8시 / 무료
☎ 760-1014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 / 전석 3만원
☎ 500-2000

월드뮤직그룹 세움의 '환타지아煥打之我'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 3천원
☎ 505-5995

배우 박정자 낭독공연 '영영이별 영이별'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
오후4시, 6시 / 무료
☎ 453-5710

21 **EBS뮤지컬 '뽀로로탐험대! 크롱을 구해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5만원, S석 4만원
☎ 창라이프 1566-6551

플라잉뮤지컬 '하늘을나는피터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문화나들이 02-747-4608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
'세계의 민요와 아름다운 우리가곡'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2014 플랫폼 초이스
퍼포먼스 '사자의 독후감'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2시 30
무료
☎ 극단 기린 760-1005

2014 플랫폼 초이스
'불세출콘서트 우연의 음악'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3시 / 1만5천원
☎ 760-1005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 전석 3만원
☎ 500-2000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1만 5천원
☎ 500-2000

연극 '닥치고 청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 김동수컴퍼니 760-3457

'소래, 바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7시 / 1천원
☎ 453-5710

22 **EBS뮤지컬 '뽀로로탐험대! 크롱을 구해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5만원, S석 4만원
☎ 창라이프 1566-6551

플라잉뮤지컬 '하늘을나는피터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원
☎ 문화나들이 02-747-4608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 500-2000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 발표회 개최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
연수구 문화의집 소극장
오후 4시 / 무료
☎ 821-6229

24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0 500-2000

同樂, 열린 무대'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
오후 8시 / 무료
☎453-5710

25 **제64년 6·25전쟁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30분
☎ 440-2972

나편해박사와 지구수비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 교육극단보물상자 070-7825-2049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 500-2000

퓨전마당극 '심청이 놀부를 만났을 때'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3천원
☎ 507-5996

더팩토리시어터의 소도구 무용극
동춘3동 부수지근린공원
오후 7시 / 무료
☎ 821-6229

26 **인천시립합창단 제140회 정기연주회**
'Korean Spirit Ⅲ'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1588-2341

나편해박사와 지구수비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
☎ 교육극단보물상자 070-7825-2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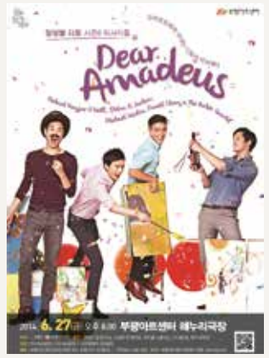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 500-2000

27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7회 정기연주회**
Gum Nanse's Choice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1588-2341

제1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 인천음악협회 873-7772

황.금.토.끼
가치있는그녀들의일탈 '에르모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051

앙상블 디토 시즌8 리사이틀
'Dear Amadeus'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시야장애석 3만3천원 / 오후 8시
☎ 500-2000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 500-2000

28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Ⅱ**
'환타지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문화공작소세움 070-7532-4325

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 '굿모닝 춘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42

2014 플랫폼 초이스
현대무용 '100W 220W'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5시 / 2만원
☎ 바이브무용단 760-1005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 1만 5천원
☎ 500-2000

신진예술가 발굴무대 '뒤끝없는 프로젝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4시 / 무료
☎ 453-5710

29 **그라시아스합창단 특별콘서트 '스바보드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 국제청소년연합 326-9229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Ⅱ
'환타지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문화공작소세움 070-7532-4325

2014 플랫폼 초이스 현대무용 '100W 220W'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3시 / 2만원
☎ 바이브무용단 760-1005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1만 5천원
☎ 500-2000

고되지만 행복한, 리더의 삶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남이 만든 길로 안 갈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거예요." 학교 따위 안가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5일간의 무단결석. 열일곱 소년은 선생님과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는 학비가 싼 교대에 들어갔다. 가난해서 지원했다고 나 같은 놈이 못 오게 학비를 올리라며, 또 다시 교만을 부렸다.

그는 바로 극단 '십년후'의 전 대표 최원영(59). 이후 그가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로부터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한 건 운명이었다. 해조차 가려 비추던 낮은 동네에서 보낸 6년간의 교편생활. 아이들 학비를 몰래 대고 학용품을 몰래 건네다 보면 봉급봉투에 달랑 1만원이 남곤 했다. 가난하지만 맑고 고운 영혼들, '예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돌연 선생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추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힘을 길러야 했다. 그때까지도 본인은 치기 어리고 오만했노라, 그는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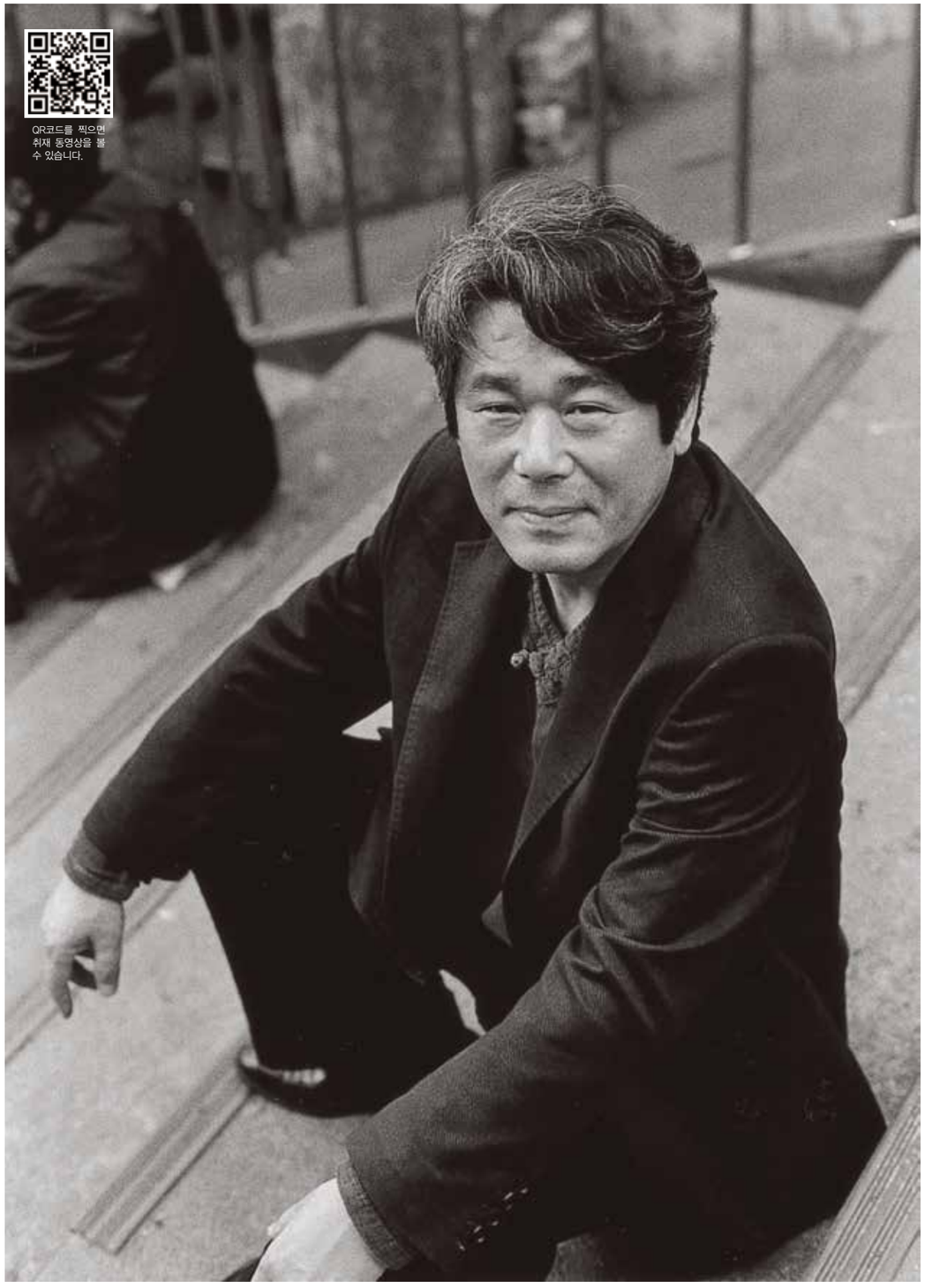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지기까지 세탁소, 빵집, 식당 일, 아파트 청소 일로 얼룩진 하루. 간신히 틈을 내 학교에 다니며 사회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웠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낸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 끝에, 비로소 깨달았다. 열일곱 소년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야할 길을…'.

그리고 십년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에서 극단 '십년후'를 창단했다. 행복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조직을 실현하고 싶었다. 20여 년 동안 마음으로 극단 식구들을 껴안고 그 또한 큰 사랑을 받았다. "극단을 통해 사랑이 조직에 스며들어 위대한 힘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극단의 담을 넘어 세상 밖으로 전하려 합니다."

그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강좌 '다카스포럼'을 수년 전부터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협동조합 다카스(DACAS)를 만들었다. 다카스란 발견하라(Discover), 수용하라(Accept), 함께하라(Concern), 성취하라(Achieve), 확산시켜라(Spread)의 단계적 리더십, 즉 사랑이 발현되는 과정을 말한다. 경영인과 정치인 등의 리더를 대상으로 강좌를 열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배움의 끝에 부와 명예,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사람들의 삶을 직시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고되지만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 그의 시선은 하늘로, 앞으로 향해 있지 않다.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명제를, 그가 끝까지 지켜내려는 이유를 서서히 알 것 같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몽골 땅에 초록빛 오아시스 드리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CF가 지구 기후변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지구에 초록빛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맑고 밝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세요.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우리시는 인천대 산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현지사업자인 푸른아시아와 공동으로 몽골에 나무 1만 2천 그루를 심어 '인천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시와 이들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몽골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다신칠링 솜 지역 10㏊에 방풍림, 유실수 등 나무 1만2천 그루를 심었다. 몽골은 국토의 78%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몽골 그린벨트 간선에 있는 다신칠링 솜은 물이 메마르고 식물이 줄어들면서 사막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 모금 활동으로 조성한 6천여 만원과 시비 보조금으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몽골 자연환경녹색성장부 바트볼트 국제협력국장 등이 참여 해,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정부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바트볼트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시가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주는 것에 감사한다."며, "몽골 정부도 앞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시행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중단했다가, 지난 2013년 시비 지원과 시민 참여로 사업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사막화가 진행된 몽골 지역 42㏊에 나무 6만 8천 그루의 희망의 숲이 조성됐다.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지구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통해 메마른 땅에 초록빛 오아시스를 드리울 계획이다.

문의 : 시 GCF전략과 440-8583

과거와 현재의 유쾌한 콜라보레이션

글 김정수 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 사회적경제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올해로 창단 22주년을 맞았다. 공연, 교육, 폐국악기 재생 리자인 사업 등을 하는 이 기업은 지난 2010년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1호로 선정됐다. 그 중심에 있는 서광일 대표를 만났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진리를 믿어요." 그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전통문화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2008 인천 부평구 문화예술상 수상, 2000 서울드럼페스티발 타악경연 최우수상 수상….

그렇다면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이 추구하는 리자인 사업이란 무엇인가. 리자인(Re-sign)은 리사이클(Recycle)과 디자인(Design)을 더한 말로, 폐국악기에 기술과 디자인, 창의성을 입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버려진 국악기 소모품들이 예술인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 깨진 꽹과리는 벽걸이 시계로, 찢어진 북과 장구는 복주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또 "환경과 금전적인 제약 등으로 공연예술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사회복지시설, 다문화지역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년원 등을 매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로인해 현재까지 문화예술에 소외되었던 9만260여 명이 문화공연을 향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1천12개 업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는 161개, 약 16%로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지역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녹아든 희노애락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간의 소통을 하나의 앙상블로 아름답게 연주할 그날을 그려봅니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며, 자신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세상의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리는 아름다운 그들을 힘차게 응원한다.

쥐잡이 시행, 인천에서 10만 마리 잡아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軍유가족 위안 영화회

금번 인천시 병무협회에서는 창설 기념행사로 2인 이상 출정 군인 가족 및 징용된 사람으로 복무 중 공상(公傷)을 입었거나 행방불명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내 인영극장에서 영화의 날 '서부대활극'을 개최한다. 2인 이상의 출정 군인 가족 및 징용됨 용사의 유가족은 많이 관람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고 한다.

(1953년 6월 3일자)

부녀자 5백여 명 부두하역 취업

부두하역작업에 부녀자들이 등장하여 남자 못지않은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보신운수 공사에서 부두하역 노무원으로 부녀자 약 5백여 명을 모집하게 되었다. 5월 28일에는 부두노조에서 모집을 실시하는 한편 5월 29일에는 인천 군경직업보도소에서 군경 유가족 원호를 위한 방책으로 총 모집 인원의 약 반수를 목표로 모집을 실시한 결과 312명을 채용하였다고 한다. 금번 부녀자 모집에 있어 양일에 걸친 총 지원자 수는 1천여명에 달하여 모집 장소는 대혼잡을 일으켰다고 한다.

휴전 협정 후 인천항을 통해 밀가루, 옥수수 등 원조 구호물자가 수없이 들어왔다. 사진은 만석부두 모습.

이번 채용된 부녀자들은 주로 부두에서 경노동급의 하역작업을 할 것이라 한다. 임금관계를 살펴보면 첫날에는 120여 환의 수입이었다고 하는데 이 작업은 청부제(請負制)이므로 앞으로 200환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관계자가 노력할 것이라 하며 작업은 연령에 따라 주간반과 야간반을 구성해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전쟁의 장기화와 아울러 일상생활면에 많은 고충도 있을 것이나 싸우는 나라의 후방 여성으로 단연 직업전선에 투신하여 근로정신의 앙양과 자신으로 생활타개책을 기도함은 여성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것으로 이번 부녀자의 부두노동의 진출이야말로 주목되는 바 크다고 한다.

(1953년 6월 3일자)

시립도서관, 열람자 1천여 명

전화의 생활난 속에서도 학구심(學究心)은 불타 지식의 전당을 찾아드는 사람은 의연 활기를 띠우고 있다. 즉 시립도서관의 지난 5월달의 열람 상황을 보면 총 열람인원이 1천129명으로 학생이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관공리, 군인의 순서이다. 열람서적별로 보면 단연 어학 및 문학 부문이 수위이며 다음으로 사회교육 부문의 순서로 되어있다. 남녀별로는 남자 958명에 비해 여자 171명이라는 미미한 숫자라고 한다. (1953년 6월 10일자)

구서(驅鼠) 작업 성과, 인천에서만 10만 마리

전국 각지에 서족(鼠族)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흑사병 혹은 각종 전염병의 전파를 우려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을 '구서작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족 박멸에 박차를 가하여 오던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동기간 중 무려 10만 마리의 '쥐'를 잡았다. 이 구서작업에 가장 우수한 동은 인현·전동의 5천217마리와 출장소로는 부평출장소의 1만456마리이며 학교로는 서림국민학교의 874마리라 하는 바 각 동에 비해 학교 측에서는 성의 부족에서 온 결과인지 초중고등학교에서 9천318마리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번 구서 작업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현·전동 외 34개 동(6만8천386마리), 부평출장소 외 4개소(1만9천692마리), 서림국교 외 9개교(9천318마리), 위생지도원(542마리).

(1955년 6월 13일자)

시민편리 위해 가로등 보수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야간 통행의 편의와 도난 방지 그리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핍박한 인천시 재정으로 14만4천환을 들여 작년 9월 26일로서 시내 주요 장소에 103개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설치 한지 1년도 못되어 유명무실하게 전구가 거의 다 없어 전주엔 소켓만이 달려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시 토목과에서는 좀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각 동에 가로등 보수에 대한 시달을 하였다고 한다.

(1955년 6월 27일자)

단기 4288년(1955년) 6월 20일(월) 1면 하단 광고

북한, 2014 인천AG 전 종목에 선수단 파견

북한이 오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시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축구 종목 참여 입장 발표에 이어 이번에 전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시는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남북 친선축구 등을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협조해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선수단, 임원, 응원단 등의 안전문제, 숙박, 공동 응원 등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또한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대비해 전지훈련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앞으로 통일부 승인절차 및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 선수단의 전지훈련 종목과 인원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인원에 대한 엔트리를 접수한 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엔트리에 대한 선수 명단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월호 인천 희생자 추모비 인천 여객터미널에 건립

세월호 참사 인천 지역 희생자 추모비가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 건립된다.
우리시는 지난달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인천 거주 피해자 유족 17명으로 구성된 '일반인 피해자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연안부두 터미널 안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방침이다. 추진 시기는 실종자 수습 완료 후 정부, 인천시, 유가족 대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부평승화원 만월당(봉안당)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도 마련된다. 만월당 안에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단층으로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희생자 채무에 대한 원금 · 이자 · 보증의 납부 유예와 세월호 승선 일반인 피해자 전체 명단 제공 요청 등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503

영종도 삼목선착장~동인천역 공영버스 개통

옹진군은 영종도 북도면 삼목선착장~경인국철 동인천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개통했다.
1일 4회 왕복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운행시간은 삼목도에서 첫차가 오전 7시 50분, 동인천역에서는 오전 9시다. 요금은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800원이며 만 65세 이상의 북도면 주민은 요금이 면제된다.
삼목선착장에서 동인천까지 운행 소요시간은 총 50분으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시간이 절반 정도 단축된다.
한편 북도면은 신도 · 시도 · 모도 ·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 시내에 가려면 공항좌석버스나 간선버스 등을 이용했으나 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인데다 2시간이 걸려 큰 불편을 겪어왔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241

외국인 환자 작년 1만명, 전년 대비 64% 증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한 외국인이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은 1만432명으로 전년 6천370명에 비해 63.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17개 시 · 도 가운데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뛰어올랐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서울(63.2%)에 이어 경기(12.2%), 부산(5.2%), 인천(4.9%), 대구(3.5%) 순이다.
2011년 8월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출범한 이후 외국인 환자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4천4명, 2012년 6천370명이며 진료 수익 역시 매년 50% 이상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의 : 의료관광재단 ☎260-3102

송도 워터프론트 2016년 착공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1단계 공사를 2016년 말 시작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지난해 2월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송도에 워터프론트를 추진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수질 관리가 가능하고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로와 수문 설치에 경제청이 투입할 사업비로 6천860억원이 추산됐다. 수변 개발에 드는 비용은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투자자로부터 벌어들일 토지 매각 수익만 1조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청은 이달 안으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워터프론트는 송도 6·8 공구 호수~북측수로~11공구 호수~남측수로를 연결, 해수가 순환하는 'ㅁ'자 모양의 수로를 조성하고 수변에 해수욕장, 복합마리나리조트, 수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22

'미추홀참물 통합 운영센터' 구축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추홀참물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한다.
'미추홀참물 통합 운영센터'는 수도시설관리소 · 부평정수장 등 4개 취 · 정수장, 23개 배수지, 68개 가압장 · 블록시스템 등 모든 수돗물 생산시설, 급 ·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 · 분석한다.
센터 운영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총 101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별 관리로 분석이 어려웠던 운영정보, 자료 등도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문의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720-2172

한국 최초 '에너지효율 대상' 수상

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4 Energy Efficiency Global Forum' 행사에서 송도국제도시가 국제·국내 건축물 환경기준을 동시 적용한 우수 도시개발 사례로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에너지효율대상'(Energy Efficiency Visionary Award, EEVA)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대상은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에너지효율 분야 도시, 기관, 기업들이 참가해 각종 정책, 기술, 교육프로그램 등 교류를 위한 'Energy Efficiency Global Forum'을 겸하는 행사다.
이번 EEVA 아시아 대륙 수상지인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13년 12월 GCF사무국 입주, 워터프런트 프로젝트 추진 등을 거치며 녹색도시 조성의 우수성과 차별화 등을 담은 행동계획을 대내외 선포하고 개발계획 및 사업수행 시 녹색경영 반영 및 Feedback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녹지율을 유지, '저탄소 녹색도시' 선언 및 실천전략의 구축 등이 이번 EEVA 수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412

송도11공구 '황금모래' 실효성 입증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견한 양질의 모래를 송도 공사 현장에 투입한다.
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1-1공구 해상 매립을 위해 해저에서 퍼올린 모래의 질이 일반적인 준설토 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여 지난 2월과 3월 2차례 한국건설품질기술원에 토질 시험을 의뢰했다. 결과는 모래 굵기와 물을 통과시키는 계수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경제청은 채취한 모래 100만㎥ 가운데 2만㎥를 송도 5공구 엠코코리아 공장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는 11공구 등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100만㎥를 모두 활용하면 재료비, 운반비 등 1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52

News Brief

국내 최고 68층, 송도 'NEATT' 이달 완공

68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건물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NEATT)'가 착공 8년만인 이달 중순에 완공된다. 연수구 송도동 6-10번지에 위치한 NEATT는 전체 지하 3층에 지상 68층, 높이 305m, 연면적 19만5천220㎡ 규모로 지난 2006년 8월 착공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 차례 중단되다, 지난해 3월 공사가 재개돼 완공에 이르렀다. 총 공사비는 약 5천억원이 투입됐다.

NEATT 완공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초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ATT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사옥으로 사용할 9~21층을 포함해 2~33층에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할 사무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36~37층에는 연회장, 레스토랑, 회의실 등 호텔 부대시설, 38~64층에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423실의 레지던스호텔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22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 개발사업지 30.2㎢ 가운데 12%인 3.5㎢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지난 4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왕산마리나 배후단지 등 9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곳은 오는 10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산업통상자원부)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나머지 26.7㎢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이 지나도록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시 자동 해제된다.

경제청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작년 8월 31일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지역에서의 각종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신 ·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전면 완화 조치했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92

인천시 협동조합상담센터 운영

우리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예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협동조합상담센터(☎1800-2012)를 운영 중이다.

협동조합상담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 교육 등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립 준비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재무 · 회계처리 등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인천지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은 (사)시민과대안연구소로 협동조합상담센터와 함께 협동조합 설립 인프라 구축을 마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홍보를 위해 오는 7월 5일 쯤 협동조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8월 중 문을 열 예정인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440-4961

Photo News

앗~! 영종대교에 곰이 나타났다?

새끼곰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대한 어미곰이 인천에 나타났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을 형상화한 높이 24m, 무게 40여의 대형 조형물 '행운의 곰'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 입구에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다. '행운의 곰'은 현재 세계 최대 크기 곰 조형물로 기네스북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40.2㎞ 길이의 고속도로로, 그동안 휴게소가 없었다. 지난 5월 9일 새로 연 영종대교 휴게소는 기존의 영종대교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휴게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휴게소에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한류(韓流) 문화 콘텐츠 매장, 한국 디자이너 보석 매장 등이 입점했고, 피겨(사람이나 영화 캐릭터 등을 본뜬 인형) 전시관, 캐릭터 상품점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고속도로 이용자 외에 지역 주민이나 경인 아라뱃길을 찾은 관광객도 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라뱃길 경인항 인천터미널 근처에 진입통로도 마련했다.

영종대교 휴게소는 수도권에서 인천공항으로 갈 때 이층 구조로 된 영종대교의 아래층(하부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배우는 의정아카데미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인천학익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의원의 역할을 연기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배울 수 있는 의정아카데미를 열었다.

학생들의 관심사인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문제와 학력평가 결과 공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생들 입장에서 토론하고, 시정질문으로는 학교강당시설 확충과 현장학습시 수련시설의 안전도 점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의 역할을 체험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심각한 욕설사용 및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TV에서만 보던 의회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무척 새로운 경험이었고, 모의의회 회의 중에 발언할 때는 녹화가 돼서 무척 떨리기도 했지만 내 스스로가 시의원이 된 것 같아 매우 재미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열려

인천광역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의회참여 프로그램인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인천시내 10개 중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기존의 학생의정체험 프로그램은 회기 일정상 1년에 10여 차례 실시했었다. 이에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의정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작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기존의 학생 의정체험 프로그램이 3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해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의 역할 실연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시의원들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려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6대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3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했다. 위원회는 3건 안건 처리를 끝으로 6대 의회에 계획된 회의 일정을 종료했다.

구재용 위원장은 "6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시민과의 거리가 한층 좁혀진 의회였고, 그 중심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7대 의회로 이어지고 더욱 성숙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과 업무협의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의원총회의실에서 2013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하는 위촉식과 향후 검사일정 및 주요 착안 사항 등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수영 의원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과 오병집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이호근 인천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등 시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조영홍 의원은 "결산검사란 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빈틈없는 결산검사를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산검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인천광역시를, 27일부터 31일까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산을 검사하며 20일간 실시됐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고전은 내 친구	안진훈, 김혜진	21세기북스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고전 읽기 가이드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우르술라 누버	문학동네	남에겐 친절하고 나에겐 불친절한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인생아 웃어라	원영	갤리온	웃으면 화가 풀리고 한번 더 웃으면 인생이 풀린다!
결핍의 경제학	센딜 멀레이너선, 엘다 샤퍼	알에이치코리아	왜 부족할수록 마음은 더 끌리는가!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유인경	위즈덤경향	30년 직장 생활 노하우가 담긴 엄마의 다이어리
사이언스 소믈리에	강석기	MID	당신의 서재에 과학을 상찬한다!
안녕, 나의 자궁	이유명호	나무를심는사람들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한 여자로 사는 건강법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	공주형	탐	10대의 정체성, 소통법, 진로, 가치관을 찾아가는 미술 에세이
(단어부터 탄탄하게 잡아주는) 어른 영어책	박보희	푸른섬	복잡한 문법 용어와 공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간편한 영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느리게 걷는 즐거움	다비드 르 브르통	북라이프	'걷기예찬' 그 후 10년
도토리 자매	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마음을 담은 대답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토리 자매!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정여울	홍익출판사	꿈만 꾸어도 좋다 당장 떠나도 좋다!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김차영**

1922년 경기도 강화군 길상 출생. 1943년 일본 리쓰메이칸대학(立命大學)에서 수학했다. '조광' · '신시대' 등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해방 후 인천에서 '시와 산문' 동인회를 조직, 1952년 '하나의 절정에서', '허구의 중립지대', '내일의 오늘'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에 전념하였다. '후반기' 동인과 '다이알' 동인으로 활동했고 '신시학'을 발간했다. 청각적 · 음악적인 서정보다는 시각적 · 입체적인 추상의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조형하여 현대화하는 시의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작품에는 '추상애로', '홍수의 날', '하늘은 높다는 의미에서', '반점 발진', '버짐', '시의 반칙', '인간무료' 등이 있다.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우르술라 누버 | 문학동네 | 2014

일도, 사랑도, 삶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전작에서 유년의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 바 있는 독일의 심리학자 우르술라 누버는 자신이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재구성했다.

결핍의 경제학

센딜 멀레이너선, 엘다 샤퍼 | 알에이치코리아 | 2014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와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가 결핍이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방식을 설명한다. 또 개인이나 조직이 결핍을 잘 관리해서 큰 만족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부족하다는 것에서 오는 심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보여준다.

안녕, 나의 자궁

이유명호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14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의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출간 후 10년 동안의 환경변화를 대폭 반영하여 펴낸 책이다. 이를 꼼꼼히 읽고 실천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 받고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느리게 걷는 즐거움

다비드 르 브르통 | 북라이프 | 2014

걷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지금,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걷는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여전히 걷기를 멈추지 않은 저자는 그때와 같은 길을 걷지만 달라진 자신의 몸과 생각을 이끌고 달라진 길 위에서 새롭게 경험한 걷기의 즐거움에 대해 전한다.

섬에 대한 나의 헛된 몽상

글 이세기 시인

우리는 왜 섬과 바다를 극진히 모시지 않는가.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치민다.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의 시간을 보내고 태어난 섬과 바다가 아닌가. 나의 헛된 망상이면 어떠한가. 나는 가끔 '황해의 정원'인 인천의 섬들을 몽상한다. 원시의 '숨'을 머금고 있는 섬만은 비사유화의 영역으로 내버려둘 수 없는가. 나의 이러한 심중은 고황(膏肓)이 되어 버렸다.
3천400여 개의 섬을 가진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는 170여 개의 섬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와 섬을 홀대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에 사는 축복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 그것은 곧 재앙이다. 우리 고장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무참히 침몰한 것도 바다를 홀대한 나라가 겪은 아픔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직 뭍에서만 길을 찾은 탓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이 빠져있는 무기물이 되고 있다. 나는 그래도 몽상한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뱃삯이 마을버스 차비와 같아야 하겠다. 꽃게, 민어, 새우의 산란 터인 모래를 파서는 절대로 안 된다.
1도(島) 1경(景)을 나는 상상한다. 소도(小島)인 자족 공동체를 꿈꾸어보자.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문학관이 있으면 좋겠다. 섬 둘레에 원시의 해조음을 들을 수 있는 '갯팃길'을 왜 시멘트로 포장하는지, 그것은 정말 천치나 바보가 하는 짓이다. 섬마다 그 많던 은모랫벌과 해송과 개울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 와글와글 생명이 숨 쉬는 덕적도, 문갑도, 선갑도, 못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를 잇는 섬공동체가 이 땅의 보루(堡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끝없는 몽상의 화수분.
우리에게 과연 혜안이 없는가. 뜻을 모으되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군집이 불가한가. 생각건대 섬의 공도화(空島化)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살아야겠다. 덕적군도만이라도 공립형 기숙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이 모랫벌에서 맘껏 뛰어놀고 주말에는 부모가 살고 있는 섬으로 가는 꿈을 꾸자. 섬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학교는 거대한 뿌리이자 기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섬을 섬답게 하자는 것이 한갓 생명주의자의 몽상이면 어떤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만인이 누려야 할 사랑을 부정한다. 이 또한 천치나 바보와 진배없다. 알고 보면 모든 섬사람들은 원래 생태주의자다. 집에 들어오는 선새미 한 마리조차도 허투루 대하거나 살생하지 않는다. 메주나 고구마나 강아지와 누룩구렁이, 갯바위의 갱조차 다 식구이기에 극진히 모신다. 나는 섬사람들의 생태적 삶에서 그물코인 벼리로 관계 맺어진 신성한 장소인 만다라(曼陀羅)를 발견한다. 우리에게 섬과 바다가 있다는 것은, 우주를 품었다는 것이고, 유무기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자, 사랑이라는 영성을 각자가 우리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위대한 사상을 가진 도시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홀대하는 바다와 섬이 보물인 까닭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한갓 미물조차 생명 가진 것을 헤치지 마라"

나는 이 말에서 대대로 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한다. 우리의 어머니는 모두 위대한 생태주의자. 한갓 미물조차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나는 생명에 대한 모심을 배운다. 미물조차 극진히 대접하고 응대해야 한다는 섬 범부들의 이 말에서 내 삶의 길을 구한다. 비록 궁핍하게 살 망정 남을 헤치지 말고 미물에게도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라는, 마음을 키우는 '마디'다.

대한민국 대표할 평화의 노래 찾습니다

'평화의 도시 인천, 노래로 만드는 평화의 물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인천 평화 창작 가요제가 열린다.

응모기간 : 6월 10일~27일까지
응모자격 : 남녀노소, 국적, 성별, 프로 및 아마추어 구별 없이 응모가능
순수 창작곡으로 온라인, 음반, 타 가요제 등에 발표되지 않은 곡

응모주제 : 평화를 표현하는 모든 내용
- 전쟁 없는 평화, 차이와 차별 없는 평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 등에 대한 내용
-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 가요, 성악, 합창, 락, 힙합, 국악 등 모든 장르

응모방법 : 웹하드, 우편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참조
문의 : 010-5518-6150

인터넷치유학교 엽니다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회복과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치유학교를 연다.

2014 인터넷치유학교
일시 : 8월 11일(월)~22일(금), 11박 12일
장소 :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경기도 여주시 소재)
대상 :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중학생 25명
선정방법 : 초기면접 → 심리검사 → 참석통보 → 캠프참여
참가비 : 10만원(식대보조금, 차상위계층 이하 무료)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인터넷중독의 근본원인 파악과 전문가와의 개별 맞춤형 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 가족 캠프
자녀이해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대안활동 및 수련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야영, 가족활동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체육활동
도예, 야영, 암벽등반, 모둠북 등의 체험활동 경험

기타 치료적 활동
명상, 산책, 숲, 음악, 미술치료 등의 치료적 활동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이메일 신청
(Fax: 721-2320, with@inyouth.or.kr)

문의 : 721-2308, 2309

사회교육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서부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어학전문 교육을 돕고자 제 3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교육과목 : 자격증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 건강교육, 주말가족교육, 단기특강 등
교육기간 : 7월 7일~9월 27일, 3개월 과정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남성포함)
우선접수 : 6월 9일(월)~ 13일(금) 18시까지, 1과목 무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 등
일반접수 : 6월 17일~7월 3일까지
문의 : 458~7360

6월 도서관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신록의 계절을 맞아 6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명	일시 및 장소	내 용	비고
도서관인문학 「비움+채움」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	6월 19일(목) 오후 7시 본관 2층 소극장	《십자군 전쟁이야기-김태권 작가》 서양 중심의 계몽론에서 벗어나 김태권 작가 특유의 위트와 반전으로 십자군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제시	5월 23일(금)~ 선착순 접수
도서관과 즐겨찾기 프로젝트 「다같이 돌자, 도서관 한바퀴」	6월 22일(일) 오후 2시 본관 2층 소극장	《찾아가는 인형극장-골목대장 뭉치》 -도서관 이용방법 및 예절을 배우고 재미있는 인형극 관람과 창의력 활동	5월 23일(금)~ 선착순 접수

문의 : 770-3800

녹색도시 만들기 전국 UCC공모전

인천시는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와 함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저탄소친환경 AG'를 위한 '녹색도시만들기 전국UCC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 : 저탄소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
규격 : 30초~3분 ○○초의 동영상 파일
기간 :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2개월간)
방법 : 이메일 접수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icgreenstart@greenstart.kr
제출자료 : 규격에 맞는 동영상 파일, 참가신청서, 소개서
문의 : 438-2122

박정자 낭독공연 열어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 : 배우 박정자 낭독공연 '영영이별 영이별'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4시, 6시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튜디오 제비(소공연장)
관람료 : 무료(사전예약 필수!)

전시 : 서예가 故남전 원중식 유작 전시
기 간 : 6월 19일(목)~28일(토)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소
관람료 : 무료(단체관람 사전예약 필수!)
문의 : 453-5710

공연 : 소래, 바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
일시 : 6월 21일(토) 17:00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관람료 : 1천원
출연진 : 가수 조영남, 웅산밴드, 정정아
MC임백천, 특별출연 박정자(홍보대사)
예매 : 인터파크(interpark.com 1544-1555)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모집

인천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고자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 : 치매에 관심이 있고 정기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
활동내용 : 치매 관련 교육 지원
걷기 대회 및 치매 극복의 날 등 행사 홍보 및 지원
치매 유관 기관 행사 지원
행정 지원
활동혜택 : 봉사 시간 인정
식사 및 간식 제공
치매 정보 관련 소책자 및 홍보물품 제공
활동우수자 시상
신청방법 :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후 e-mail(incheon@nid.or.kr) 접수
(신청서는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incheon.nid.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 : 472-2027~9, 우리의 노래

"툭하면 '싫어', '몰라' 우리 아이 왜 그럴까"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툭하면 '싫어', '몰라' 우리 아이 왜 그럴까-10대 부모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부모특강을 연다. 최근 학부모 필독서로 주목 받고 있는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의 저자 건국대학교 정신의학과 하지현 교수를 초빙하여, 10대 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더불어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불안해지는 부모들에게 실용적인 해답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시 : 6월 17일(화) 10:00~11:30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실
인원 : 학령기(초3~고3) 자녀를 둔 부모 70명(선착순)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전화접수(☎ 721-2300)
문의 : 721-2310

2014년 지피지기 취업성공! 워크숍

근로자문화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인천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8회, 240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별	당초 운영일	참여학교
5회	6월 9일~11일	문학정보고등학교(여 15),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여 15)
6회	6월 23일~25일	인평자동차정보고(남 15), 인천여자공업고(여 15)
7회	7월 7일~9일	인천세무고등학교(여 15), 한국문화컨텐츠고등학교(여 15)
8회	7월 14일~16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남 10, 여 20명)

문의 : 578-5121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인천만들기! '행복나눔 인천'

'행복나눔 인천'은 군·구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힘을 합쳐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현금 · 물품 · 재능기부 등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연계하는 시민참여형 통합복지포털 시스템이다.

도움이 필요한이웃을 발견하시면
통합복지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행복나눔인천' **도움이 필요한 이웃 게시판**을 통해 요청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물품/현금/재능기부)을 주고자 하실 때는
통합복지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행복나눔인천' **나눔게시판**을 통해 기부
또는 대표 전화 1899-5878로 연락

문의 : 440-2977

콘텐츠 모니터링 & 사이버 학습 성공스토리 공모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습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학습성공 스토리를 공모한다.

① 나만의 사이버 학습 성공스토리!
각자의 상황에서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를 자유롭게 기술

공모방법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여
작성방법 : 자유양식, A4용지 1~2장 내외
선정방법 : 콘텐츠 제공업체 협의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

② 내가 바로 시민 학습 모니터즈!
수강한 강좌를 직접 모니터하고, 모니터지를 많이 작성할수록 당첨확률도 올라간다.

공모방법 : 인천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 후
수강강좌 옆의 모니터지를 작성 후 등록
선정방법 : 모니터지 제출 그룹별 추첨
결과발표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개별 문자 통보
당첨자 발표 : 6월 17일(화)

문의 : 440-7674, www.cyber.incheon.kr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취업과 연계하고 있다.

대상 : 인천시 거주자 중 취·창업을 원하는 여성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마감일
모바일 앱 & 웹디자인 창업	7월 1일~9월 26일	월~금 13:00~17:00	24명	6월 23(월)
분식 창업	7월 7일~9월18일	월, 화, 목, 금 14:00~18:00	24명	6월 25(수)

교통비 지원 : 매월 3만원(출석률 80% 이상)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반명함) 1매,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자비부담 5만원 ☞ 교육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기준 : 80% 이상 교육출석 또는 20% 이상 교육출석 후 취업
문의 : 440-6545, 6556 women-center.incheon.go.kr

홈스테이 참여 가정 모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인천을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홈스테이(민박) 가정을 모집한다.

모집 개요
가. 모집 기간 : 6월 30일까지
• 집중 운영기간 :9월~10월(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나. 모집 가정 : 3만명 수용 규모
다. 참여 조건 : 홈스테이 참여를 원하는 2인 이상 가정 누구나
라.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 www.homestay2014ag.com
• 신청서 접수
– 시, 군·구 민원실, 주민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FAX 송부(440-8645 시 자치행정과)

문의 : 451-1732, 440-2422~8

환경을 부탁해!

인천환경공단은 '제19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백일장, 어린이 미술대회, 환경골든벨 행사를 열고, 참가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환경백일장, 어린이 미술대회, 환경골든벨, 승기하수처리장견학 참가 신청!

행사참석 : 6월 14일(토) 10:00
신청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
접수방법: 6월 8일(금)까지 인천환경공단으로 접수
문의 : 899-0199

2014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마련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주제 : 예산을 절약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응모기간 : 6월 25일(수)까지
참여방법 : 행복예산 70선 생애별 수혜 계층별 사업을 살펴보고 나라 살림을 절약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당첨자 발표: 7월 21일(월),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www.budget.go.kr) 내 발표
공모전 사이트 : budget.go.kr/front/web/open/howto.do
문의 : 044-215-7191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프로그램명	내 용	일 시	대 상	문 의
독서아카데미 「한국사 속의 인천」	인천의 산업, 문화유산, 인물, 문학 등 역사속의 인천 들여다보기	6월 5일(목)~ 26일(목) 매주 목요일 19:00	전체	440-6662
원화전시회	고대영 작가의 「두발자전거 배우기」	6월 10일(화)~ 30일(월)	전체	440-6666
박지영 작가전	공예 전시	6월 11일(수)~ 29일(일)	전체	440-6663
「아시아에 반하다 – 아시아 사람, 그리고 문화 이야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아시아 6개국의 사회, 문화, 예술 등 소개	6월 11일(수)~ 25일(수) 매주 수요일 19:00	전체	440-6662
숲 체험행사 「얘들아 숲에서 놀자」	'알록달록 색깔놀이 편' 도서관 옆 공원에서의 환경 체험 프로그램	6월 21일(토) 10:00~ 12:00	초등학생	440-6666
감독과의 대화 「혜화,동」의 민용근 감독	「별별別別 시네마」 부대행사	6월 24일(화) 19:00	15세 이상	440-6666
인천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별별別別 시네마」	독립·예술영화 상영	4월~11월 매주 화요일 19:00	전체	440-6666

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열려

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가 열린다. 지역을 살리는 든든한 마을기업을 만나는 자리에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일시 : 6월 13일~15일
장소 :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문의 : 440-4972

DAUM 줌인코리아인천
'줌인코리아인천'을 검색하십시오.
굿모닝인천에 실린 기사들을
'다음'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줌인인천 Zoom in Korea InChoen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한 행복한 세상'

동그라미협동조합
(circlecoop.com)

동그라미협동조합은 '함께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함께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을 모토로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에게는 생산자(제조공장)와 직거래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 먹거리 및 농·축산물을 시골마을과 직거래, 신선한 우리 농산물 공급, 차별화되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마켓사업,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며 조합원에게는 저렴한 가격,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사업, 시골마을과 공동출자형식으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농장운영사업 등이다.
또한, 동그라미협동조합은 생활필수품 공동구매로 가격인하, 품질보증, 제품 안정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나눔과 봉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봉사단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동그라미협동조합의 권덕진 이사장은 "선진민주 시민의 척도인 봉사활동, 약자에 대한 배려, 원칙과 신뢰가 바로서는 반듯한 선진 민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더욱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8개 언어로 ‘인천’ 알리다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na’, ‘인천의 어제 · 오늘’ 특집 꾸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행하는 계간지 ‘Koreana’가 봄호 특집으로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다뤘다. 문화예술전문 종합지인 ‘Koreana’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87년에 창간한 계간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등 8개 언어로 발간해 해외 160여 개국에 배포하고 있다.

‘Koreana’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 예술을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다뤄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한국잡지협회로부터 2007년, 2008년, 2010년 등 3회에 걸쳐 ‘우수전문 잡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봄호의 특집에서는 비류 건국부터 인천공항까지 역사 · 문화는 물론, 신경숙 소설로 묘사된 인천을 담아냈고, 인천 앞바다의 보석 같은 섬들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우성 인천시 시사편찬위원의 ‘한국의 관문, 인천의 역사’, 인천 출신인 이창기 시인의 ‘안과 밖을 융합한 도시’, 소설가 신경숙 씨의 ‘장편소설 〈리진〉이 묘사한 인천’, 자유기고가 벤 잭슨의 ‘개항 항구에서 넘버 원 공항으로’, 강제윤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섬학교’ 교장의 ‘살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 인천 앞바다의 섬들’ 등이다.

특히 조우성 씨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천은 오늘날 대한민국 제3의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고구려의 왕자 비류로부터 시작된 이주의 역사는 이 도시의 정체성 형성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883년의 개항이 19세기 해양의 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의 포함외교에 의한 강압적, 피동적 역사 전개였다면,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21세기 우주 항공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진정한 개항이었다”고 말하면서 역동적인 도시의 미래로 인천을 손꼽았다. ‘코리아나’ 인천 특집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oreana’ 홈페이지(www.koreana.or.kr)를 참고하면 된다.

Good Morning

ASIA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스리랑카

49
에티켓
파티 열기

50
교통대책
대중교통은 6만 관람객의 편하고 빠른 발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56
하나되는 아시아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쳐? 외

58
Asiad News
최경주, 2014 인천AG 홍보대사에 위촉 외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천혜의 자연과
순수함을 간직한 나라

스리랑카

글 · 사진 양승규(동국대학교 외래교수)

스리랑카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제1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부터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대회에 참가하면서 총 16회의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2010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2010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스리랑카는 골프, 공수도, 럭비, 배드민턴, 복싱, 비치발리볼, 사격, 사이클, 수영, 스쿼시, 싱크로나이즈, 양궁, 우슈, 역도, 요트, 육상, 조정, 체조, 크리켓, 탁구, 태권도, 테니스 22개 종목에 104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한번도 빠짐없이 참가했음에도 메달을 따지 못한 한을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풀을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스리랑카팀의 의지는 남다르다.

인도의 눈물인가 인도양의 보석인가

스리랑카는 거대 인도대륙의 아래쪽에 붙은 가난한 섬나라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혹자들은 그래서 스리랑카를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부른다. 인도와 인접해 있는 나라지만 인도를 여행하면서도 쉽게 가지지 않는 나라가 또한 스리랑카다. 스리랑카의 국토 면적은 6만5천610㎢로 대한민국의 3분의 2정도에 불과하다. 국가 기반시설 중 중요한 요소인 도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제로 여행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도로는 포장상태도 그렇지만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막힐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시간이나 소비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차량들도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스리랑카에서 여행을 할 때는 단순히 거리를

보고 시간계획을 짰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수다. 때문에 충분히 여유있게 시간계획을 짜야한다.

열악한 국가의 인프라를 제외하면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보석처럼 화사하고 아름답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석의 진가를 볼 수 있다.

스리랑카를 짧게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단기 여행 코스를 짜 핵심적인 여행지를 들러보는 경우가 많다. 나라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 단기간에도 주요 여행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주로 수도인 콜롬보에서 여행을 시작해 플론나루와 담블라, 시기리아를 거쳐 다시 콜롬보로 돌아오는 일정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는 7~8일간 스리랑카를 둘러보는 코스로, 주로 스리랑카의 유적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모두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하면 무난하게 돌아볼 수 있으며, 서두르면 5박 6일 정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스리랑카를 제대로 여행하려면 최소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스리랑카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품은 스리랑카 고원지대의 차밭과 갈레 등을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스리랑카는 오래된 불교유적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나라로 장기간 여행하는 여행자라면 고원지대의 관광은 필수다.

많은 여행자들은 인도를 보름정도 여행하고 나서 스리랑카 에어라인 편으로 콜롬보 공항으로 넘어와 스리랑카 여행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자세한 여행 정보나 가이드북이 많이 없어 정보가 부족한 것도 스리랑카 여행의 어려운 점이다.

요즘은 주로 인터넷에서 미리 스리랑카 여행을 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요긴하게 활용하거나, 콜롬보 공항에 모여있는 여행사 중 한 곳에서 교통과 숙박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여행객들도 많다.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우리는 스리랑카를 떠올리면서 실론티를 생각한다. 그만큼 실론티는 스리랑카의 대표적 홍차다.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이름으로 옛 이름을 따서 불리워진 홍차가 바로 실론티다. 1867년 설립된 'GLENLOCH'라는 차 공장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유럽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주로 차는 고원지대에서 생산하는데 누와라 엘리야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차 생산지다. 실론섬의 중앙산지 피두루탈라갈라 산(2천524m)의 남서쪽 기슭, 해발고도 1천830m의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차는 특히 그 맛이 뛰어나다고 한다.

커다란 섬나라 전체가 하나의 식물원같은 스리랑카는 가는곳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지난 3월 9일부터 스리랑카에 취항하면서 스리랑카을 찾는 한국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약 8시간을 비행해서 가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스리랑카의 화폐단위는 스리랑카 루피(Sri Lanka Rupee, LKR)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1달러(USD)는 114스리랑카 루피(LKR)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592억 달러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2천836달러다. 수출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04억 달러, 수입은 202억 만 달러다. 주요 농산물은 차, 코코넛, 고무 등이다.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 느리다.

짧은 여행에는 현지여행사를 이용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 여행사들이 죽 늘어서 있는 곳에서 눈에 들어오는 여행사 한 곳을 정해 예약을 했다. 차량과 기사, 숙박(조식포함)을 포함 4박 5일간의 스리랑카 여행 일정에 지불한 돈은 400달러다. 폴롬보공항에서 출발해 담불라, 시기리아, 플론나루와 캔디, 누와라, 엘리야를 경유해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2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기사, 시기리아 2박, 캔디 2박(게스트 하우스와 조식 포함)을 모두 포함한 것이 400달러이니 꽤 괜찮은 흥정이다. 특히 현지 사정을 알기 어려운 개별 여행에는 더욱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된 여행자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다.

스리랑카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지만 그곳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친절하고 순수하다. 짙푸른 나무와 투명하고 맑게 내리쬐는 햇살, 향기는 물론 맛 또한 탁월한 열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 가격이 저렴한 것도 매력적이다. 여기저기 어디에나 잔뜩 늘어서 있는 오래된 사원과 불교 유적지도 정말 볼 만하다. 이방인을 맞이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어린이들의 티없이 밝은 표정도 잊혀지지 않는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 '시기리야'

180m나 높이 솟아 올라 있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알려져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시기리아는 주변의 울창한 삼림 한가운데 우쭉 솟아 있는 화강암 덩어리다. 평원의 저 멀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시기리아 절벽에는 프레스코화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요새로 활용되었던 거대바위 시기리아의 벽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프레스코화는 시기리아를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파티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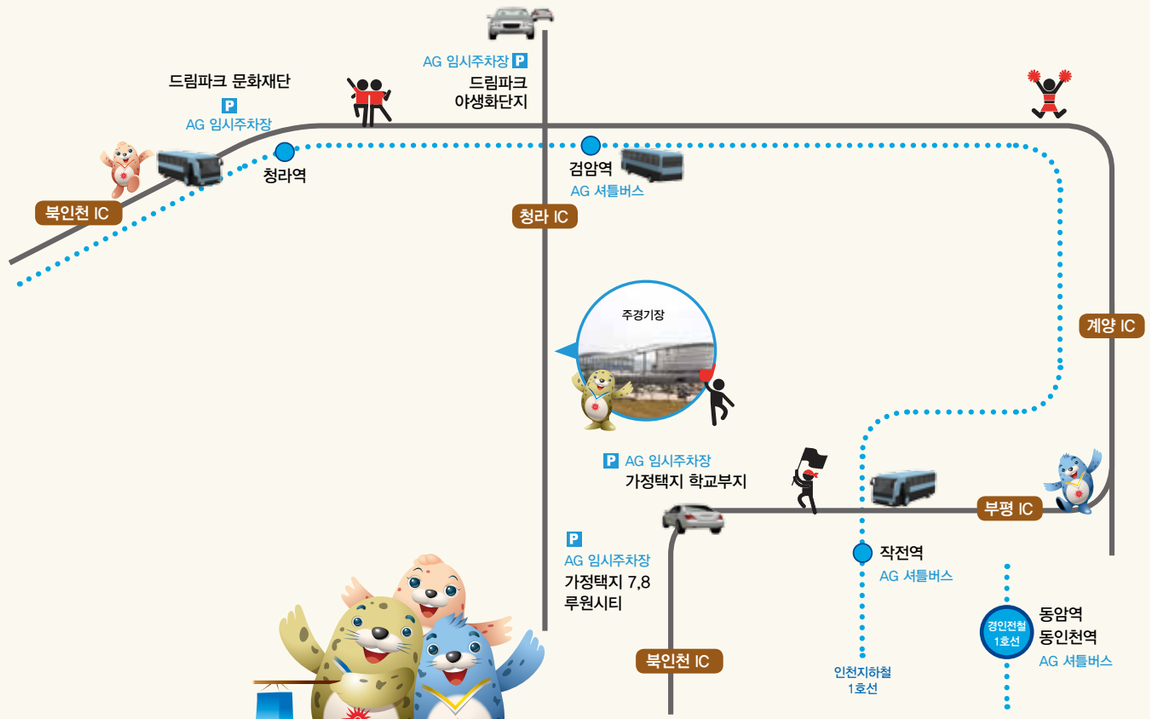
그림. 유환석

Diversity Shines Here

대중교통은 6만 관람객의 편하고 빠른 발

6월이 되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사전 준비에 열과 정성을 다해야 할 때다. 3개월 뒤면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할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교통과 수송대책은 준비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개·폐막식이 개최되는 주경기장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둔 교통대책을 펼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개 · 폐회식 6만여 명이 몰린다

45억 아시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개·폐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에는 6만여 명 관객이 몰린다. 이 밖에 선수 및 관계자, 행사진행 2만여 명이 참여하며, 개·폐회식은 19시에 시작해 22시까지에 마친다.

개·폐회식 당일 일반 관람객을 위한 5개소의 전용 게이트를 운영한다. 입장 단계부터 분산을 유도하여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다. 선수단·임원, 미디어·심판, 귀빈들을 위한 전용 출입구는 별도 운영한다.

주경기장에서는 개·폐회식, 육상, 마라톤, 크리켓 경기가 열린다. 경기장의 관람석은 6만2천818석이고, 이중 가변석은 3만여 석이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달하며 주차는 1천901대를 수용할 수 있다. 2부제 시행에 따라 개·폐회식 수송분담률은 승용차 9천491대, 버스 443대, 도시철도 321대로 분석된다. 개·폐회식 당일 인천지하철 1호선과 주경기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무료 탑승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 임시주차장 마련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인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지역은 강화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자율 2부제가 실시돼 사전 연습 기간을 거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이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비영리,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가 함께 탄 차량에 대해서는 기간 중에도 운행 허가증이 발급된다.

승용차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권역별 접근 방법과 임시주차장이 마련된다. 서울, 경기북부의 경우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청라IC를 이용한 후 주경기장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고, 영종도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북인천IC, 서울 · 경기 중부 일원은 외곽도로를 타고 계양IC, 경기남부 방향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인천IC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승용차 이용객들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임시 주차장의 자동차 수용 규모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5천대, 드림파크 문화재단 일원 최대 1천대, 가정택지 4블럭 2천200대, 가정택지 7, 8단지 4천대다.

특히 인천 및 경기 남부에서 오는 차량은 가정지구 7, 8블럭 임시주차장으로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 가정지구 4블럭 및 학교부지에 마련한 임시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셔틀버스

지하철, 임시 주차장 주변 400여 대 배치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문화재단,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4블럭 및 학교부지, 가정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 이곳에는 총 129대의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관람객들을 수송한다.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경인전철 노선인 검암, 동인천, 동암, 작전역 등에도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전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발 노릇을 한다. 총 400여 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은 행사 4시간 전, 종료 1시간 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것을 막고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버스

노선조정 없이 증차해 편의도모

우리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서구 주경기장을 오가는 버스노선을 조정하지는 않지만 증차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시내버스는 검암역 28번, 승학로 1번(부평, 계양), 17, 77, 903번(동구, 김포), 42-2(청라지구), 봉수대로 연계 46번이다. 증차되는 버스는 17-1, 42-1, 308번이다.

광역버스 노선도 주경기장을 경유 한다. M6118번, 9300번, 6510번, 7700번이고 급행버스 904, 904-1노선은 주경기장으로 직접 연계하고 노선 조정과 증차를 함께 진행한다.

도시철도

증차 운행합니다

우리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용차보다 지하철의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 등은 필요 시 증편하여 운행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개 · 폐회식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차를 운행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개 · 폐회식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공항철도 검암역에는 셔틀버스가 준비된다. 인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인천역과 동암역에도 셔틀버스를 마련해 시민들을 수송한다. 동인천역에는 북광장 노선버스 승차장에 셔틀버스가 대기하며 시민들을 맞는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도 셔틀버스 정류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돕는다. 셔틀버스는 담당 역사와 주요 지점과 서구 주경기장 사이를 왕복 운행한다. 관람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서구 주경기장 인근에 내린 뒤 걸어서 경기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interview

오명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지부 서부지회장

“주경기장 주변서 교통정리 도우미 역할”

모범운전자회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운전으로 교통봉사를 하는 봉사 단체다. 오명희 인천지부 서부지회장(51)은 20여 년간 묵묵히 교통 봉사활동을 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교통봉사가 무형의 보이지 않는 활동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오 회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들의 편리한 교통안내와 길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개 · 폐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과 각 경기장의 교통정리를 도울 계획이다.

오 회장은 인천시민으로 아시아경기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해야 인천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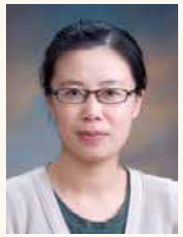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단오절, 아버지의 날 등 6월 행사가 많아요

글. 이춘연(李春燕, 중국)



중국은 6월에 행사가 유독 많다. 먼저 6월 1일은 '얼통제(兒童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어린이날이다. 공식명칭은 '국제아동절'. 국제아동절은 1949년 9월 1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명절로 제정한데서부터 출발했다. 중국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별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주로 어린이날 전날에 소풍을 가거나 여러 가지 오락활동을 하는 등 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음력 5월 5일은 중국의 단오절이다. 단오절이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명절이 된 것은 굴원(屈原)의 전설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 굴원은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시인으로서, 여러 차례 초희왕(楚懷王)에게 부패를 청산하고 국시(國是)를 바로잡기를 요구하다가 먼 곳으로 유배를 당했다. 어느 날, 초나라의 수도가 진(泰)나라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멱라강(汨羅江)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가 바로 기원전 278년 음력 5월 5일이며, 그의 우국충정을 기리는 날이 됐다.
단오절에 용선경기(龍舟競賽)를 실시하고 쭝즈(棕子)를 먹는 것도 굴원의 전설에 서 연유한 것이다. 굴원이 멱라강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음식물을 강물에 던져 넣었다. 이것이 나무 잎으로 밥을 싸서 오색실을 감는 오늘의 단오절 전통 음식 '쭝즈(棕子)'의 탄생이다.
특히 용모양의 배를 만들고 경주하는 용선경기(龍舟競賽)는 개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단결력을 결속시키는 행사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괄목할만한 수상스포츠로 성장하며 홍콩이나 상하이 등지에서 국제 용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 6월에는 '눈(眼)사랑의 날'도 있다. 1993년 5월 5일 중국 천진에서 최초로 '눈사랑' 행사를 진행한 이후로 매년 6월 6일을 '전국 눈 사랑의 날'로 정했다. 중국에서는 눈을 위한 체조까지 만들었다. 눈 체조는 추나 경락이론을 이용해 눈 주변의 혈을 안마하고 눈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해 눈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셋째주 일요일은 '아버지의 날'로 지낸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어버이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로 나뉘어 기념한다. 아버지의 날은 191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날'에서 기원한다. 아버지날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하얀색의 장미를 가슴에 단다. 참고로 중국의 어머니의 날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이다.

사진출처 : www.baidu.com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장원

먹는 것 갖고 장난을 쳐?

일본 교토 나라에 있는 절, 동대사의 사슴공원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관광객이 먹을 것을 사슴에게 줄까말까하다 봉변 당하는 모습.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유종하 동춘동 앵고개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장

작년에 동생과 중국 대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장이라는 대련 성해광장입니다. 경사가 져서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듯 한데, 그 끝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으로 멋지답니다.

김경희 동구 솔빛로

2014 인천AG 성공을 기원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남장원을 여행하면서 300톤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와불상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곳곳에 깃들기를 그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길 기원합니다.

박숙자 부평구 부흥북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빌딩 아래서

언니들과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보았습니다. 오른쪽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건축하였다고 해 감동이 더했습니다.

황인희 서구 크리스탈로

기저귀 가는 것은 아빠 몫?

두바이 쇼핑센터의 화장실 표지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기 기저귀방은 엄마 화장실에 있는데, 그곳에는 특이하게도 아빠 화장실 쪽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황은희 연수구 동춘동

광저우의 찬란한 야경

중국 화남 지방 최대의 무역도시 광저우의 찬란한 야경입니다. 광저우는 2010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가 그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김은영 남동구 호구포로

언어권별 회화

Learn Asia

꼭 이기세요!!!

오는 9월 19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선수들의 메달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승리를 향해 전력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아시아의 언어로 '꼭 이기세요'라고 말 해보자. 선수들의 사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영 어	Good luck! 굿 럭!
중국어	一定要获胜。(병음) yí dìng yào huò shèng。 이딩 야오 후워셩
일본어	勝(か)ってください！ 캇떼 구다사이!
마인어	Mesti menang 매스티 므낭
베트남어	Nhất định sẽ chiến thắng . 넉 딩 새 젠 탕
이란어	برنده بشید 바렌데 버쉬드
몽골어	заавал түрүүлээрэй 자왈 투롤레
타이어	เอาชนะให้ได 아우차나하이다이
라오스어	ຂໍໃຫ້ ໄດ້ ຊະນະເດີ 커하이 다이싸나더
크메르어	សូមអោយ ឈ្នះ។ 쏨 아어이 드로 때츠네.
우르두어	مزل ی جیتیں 라저미 지땡
러시아어	Обязательно выграйте. 아비자쨀너 비그라이찌
아랍어	لا بد أن تفو 라분다 안 타푸-즈

NEWS

2014 인천AG 소식

아시아 각국에서 Fun Run 성황리 개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한창이다. 지난달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해외 홍보행사인 '펀런(Fun Run)'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필리핀 국가대표 선수단 및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펀런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최경주, 2014 인천AG 홍보대사에 위촉

미국 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최경주(44 · SK텔레콤) 선수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최경주는 지난달 14일 인천 스카이72골프클럽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 행사에 참가해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최경주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증진과 응원뿐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해외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한편 최경주 외에 메이저리거 추신수, 수영의 박태환, 리듬체조 손연재, 마라토너 이봉주, 여자 복싱 이시영 등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458-2812

2014 인천AG 입장권 발권센터 개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발권센터를 개소했다.

입장권은 개회식 10만원~100만원, 폐회식 10만원~60만원이며 일반경기는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종목 · 좌석별로 구분해 판매한다. 입장권 발권센터는 10월 4일까지 단체 구매 입장권 신청 및 접수, 개인 및 단체 입장권 발송, 해외 판매 입장권 발권 및 인계 작업, 입장권 안내 콜센터(☎1599-4290) 운영 등 입장권과 관련된 종합상황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AG조직위, 조직개편 및 인사단행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달 12일자로 경기운영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본부, 운영지원본부, 미디어본부를 사무총장 직속으로 하여 수익사업과 선수촌운영, 미디어지원 업무를 강화했으며,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으로 구분되던 사무차장제를 기획사무차장, 경기사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본부는 경기기획 및 시설을 담당하는 경기본부와 대회기간중 4천500명의 대회운영요원을 투입해 49개 경기장에서 36개 경기종목을 운영하는 경기운영본부로 분리하는 대회 운영체제로 개편했다.

인천AG조직위, 세월호 희생자에 성금 전달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동참해 모은 성금 1천302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조직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침몰사고 피해자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조직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15개 후원사 워크숍 개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후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플라이어 등급의 후원 계약을 체결한 AJ네트웍스, 아모제, 한진, 동부화재, SK플래닛 등 15개 후원사가 참석해 권리제공 및 권리보호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방문해 대회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후원사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후원사 개별 미팅을 진행했다.

선수 · 임원 급식 시식회 실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선수 · 임원 급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식회는 이달 1일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조정위원회 시식회에 앞서 사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식회에는 대회 기간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식당에서 1만3천여 명의 선수 · 임원들에게 제공할 5일 주기 메뉴 중 첫째 날 중식 메뉴 85가지를 선보였다. 참가국의 특성이 반영된 서양식, 동양식, 이슬람식, 한식 등을 구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천AG 경기장 관람석에 이름을 새기세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관람석에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장 관람석 뒷면에 시민의 이름을 새길 계획이다.

대상 경기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경기장 등 3곳이다. 관람석 이름 갖기 1구좌 금액은 개인은 2만원 이상, 단체·법인은 20만원 이상이다. 조직위는 신청자 이름과 신청자가 원하는 15자 이내의 문구를 좌석 뒷면에 새겨 최소 2년 이상 보존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50구좌(100만원) 이상 후원자 명단을 동판으로 제작해 경기장 주출입구 벽면에 설치하고 500구좌(1천만원) 이상 후원자의 이름은 아시아경기대회 백서에 등재할 예정이다. 관람석 이름 갖기 신청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incheon2014.kr) 또는 조직위 기념사업팀(☎ 458-2490)에서 할 수 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10월 18일~10월 24일

인천장애인AG 선수단장 세미나 예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달 10~13일 APC, IPC, NPCs 등 대회 선수단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등록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4개국 8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1일 하얏트리젠시인천호텔에서 개회식 및 대회준비상황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이튿날 경기장, 훈련장, 선수촌 등 대회 시설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또 사전등록카드 발급을 위한 선수단 정보 확인, 등록 정보, 참가자격 확인, 숙박 및 수송, 개폐회식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 개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달 13일까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어린이 ·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백일장 주제는 '장애인은 내 친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 사랑, 소통 등을 폭넓게 다루면 된다. 참가부문은 초등부 · 중등부 두 부문이며 전국 초등 · 중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서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공식 블로그의 참여이벤트(blog.incheon2014apg.org/ko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작품은 직접 그린 그림과 400자 이내의 손 글씨가 함께 어우러진 '시화'를 이달 13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장애인AG 등록시스템 오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달 8일 대회 참가자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오픈했다.
우선 해외 VIP 및 보도팀, 국내외 선수 · 임원 및 기술임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오픈하며 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7월~9월에는 대회 운영요원 및 안전요원, 국내 VIP 및 보도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등록 카드를 발급 받으면 대회 기간 동안 출입국 보장과 대회 시설 출입권한이 주어진다. 등록대상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 임원, 자원봉사자 등 2만6천여 명이다.

bbb코리아와 통역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bbb코리아와 지난달 2일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bb코리아는 19개 외국어에 능통한 4천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전화로(1588-5644) 내 · 외국인간 의사소통을 돕는 언어 봉사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bbb코리아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6천여 명의 선수 · 임원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게 된다.

휠체어댄스스포츠 및 보치아 종목 기술대표 초청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사흘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휠체어댄스스포츠 기술대표와 보치아 국제스포츠연맹 기술대표를 초청해 경기 준비사항 점검 등 종목 전반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각 기술대표들은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와 함께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경기장 설치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조직위를 방문해 대회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직위 실무진과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인천장애인AG, 블랙야크 공식 후원

블랙야크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블랙야크는 강태선 회장과 김성일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지난달 2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블랙야크는 대회에 참가하는 6천여 명의 진행요원 및 대회 관계자 등에게 유니폼을 지원하게 된다.

발에 채이지 않게 조심

'누구네 집 애가 장난감을 여기다 놓고 갔지?'
이 자동차는 바퀴가 세 개인 삼륜차(三輪車)입니다.
광활한 대륙을 달리는 모습은 마치 딱정벌레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만한 크기지만 이 차의 쥐장도 당당한 '마이카족'이랍니다.

– 중국 칭다오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